

순응자 일탈에 대한 중화기술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 철*

국문요약

본 논문은 관습적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범하는 일탈행위를 “순응자 일탈”의 개념으로 파악한 후, 중화기술이 이 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다른 유형의 일탈행위에 대해 개발된 중화기술 가운데 순응자 일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중화기술로, 손상부인, 피해자부인, 책임부인, 비난자비난, 장부책은유, 편재성향변의 여섯 가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첫째 중화기술이 직접 일탈행위를 결과하는 변인이 아니라, 장래의 일탈 태세를 결과하는 변인이란 점과 둘째, 특히 순응자 일탈에서 중화는 규범침식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방법론에 관한 검토에서, 횡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중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은 일탈 태세를 결과하는 중화의 순간과 규범침식 과정의 한 부분으로 포착되는 중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18명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개별 중화기술이 특정한 순응자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열 두 개의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난자비난의 중화기술과 장부책은유의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종의 탈중화 전략이 중화의 경감을 통하여 순응자 일탈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비난자비난과 장부책은유 기술을 탈중화할 수 있을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 제안된다.

* 동양대 교수,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객원연구원

I. 들어서는 글: ‘순응자 이탈’과 중화이론

일탈 연구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일탈과 권력자의 일탈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나 청소년들과 같은 권력 없는 인구집단은 형사사법기관의 주된 통제 대상인 동시에 일탈 연구의 중심이며, 권력자들의 일탈행위나 범죄 현상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기업범죄 개념을 통해 현대 범죄학의 연구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¹⁾. 반면, 일탈과 범죄 연구는 이 두 인구집단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의 형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 경향은 형법위반 행위가 편재적(遍在的)이라는 경험적 발견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탈 현상을 다수나 평균으로부터의 일탈로 비치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일탈을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로 이해하는 이론적 기준에 충실하면서, 상대적으로 일탈자로 주목받지 않는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일탈행위의 영역을 프레제(Frehsee, 1991)의 “순응자(의) 일탈(*Abweichung der Angepaßten*)”²⁾ 개념을 가지고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프레제는 이 개념이 관습적인 사회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가끔 기회가 있을 때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은 전문적 범죄와 조직범죄를 제외하며, 전형적으로 범죄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행위도 배제한다. 이

1) 예를 들면, “Crimes at the Top”(Johnson/Douglas, 1978), “Corporate Crime and Governmental Deviance”(Ermann/Lundman, 1978), “Elite Deviance”(Simon/Eitzen, 1982) 등을 보라. 일탈이나 범죄 연구가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에 주목하는 경향은 윌슨과 브레이드웨이트(Wilson/Braithwaite, 1978)의 “일탈의 두 얼굴”(Two Faces of Deviance), 즉 “권력 없는 자의 범죄와 권력자의 범죄”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2) 여기서 “순응자”로 번역된 “*Angepaßten*”은 “(관습적 사회에) 적응된 사람”을 뜻한다. 누구도 완전한 의미의 순응자이거나 완전한 의미의 범죄자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순응자”라는 부가어는 불필요하다. 그렇지만, 본 논문이 “범죄자로 지칭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일탈행위 영역과는 구별되는, “순응자로 지칭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일탈행위 영역에 주목하는 한, 이 영역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순응자”라는 부가어는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순응자”는 “일탈자”의 상호배타적인 대립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일반적인 “준법 시민”(law-abiding citizen, Wallerstein/Wyle, 1947)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영역은 보통 통제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는 유사 범죄적 활동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들을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들을 의미한다(Frehsee, 1991: 28-29).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탈이라기보다, 이기심이 단순히 지나치게 표현된 결과로 나타나는 일탈이다(Frehsee, 1991: 34).

이상의 기술은 “순응자 일탈”의 영역이 “경미범죄”의 영역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행위자를 중심으로 파악된 순응자 일탈 영역과 행위의 경중을 기준으로 파악된 경미 범죄 영역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밖에도 순응자 일탈(deviance by the conformist)은 “직업범죄”(occupational crime, Newman, 1958; Clinard/Quinney 1967, 1973; Green, 1990)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 직업범죄 개념은 서덜랜드의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에서 범죄발생의 직업 관련성에 주목하여 개발된 것으로, 직업 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탈이나 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 반면, 순응자 일탈은 직장생활과 일상생활과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에 두루두루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운전부주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포함한 교통범죄, 가정폭력, 상점절도, 직원에 의한 회사물품 반출이나公款 유용, 허위 세금자료 제출, 보험회사에 허위사실 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유형의 양상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출처를 참조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전영실, 2004: 22-24)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김은경, 2003) 역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처리건수의 꾸준한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노성호(1995: 33-36)는 작지 않은 규모의 일상적인 상점절도가 대형서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세범죄, 관세범죄, 부정수표 범죄 등의 현상도 암수울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장영민/조영관, 1993: 93). 최인섭과 최영신(1994)의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는 고용주를 상대로 한 직원의 절도의 규모를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직원보다 기업의 고임금 관리자들이 기업에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무

원 범죄에 관한 연구(연성진, 2007, 1999)와 보험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이병희, 2002; 탁희성, 2000, 특히 공보험 범죄에 관해, 황만성, 2003)도 해당 일탈행위가 일정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은 때로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순응자 일탈은 순응과 일탈이라는 자체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화이론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먼저,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보편화된 행위가 비록 공식규범을 저촉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업자들 사이에 허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관행이 통용되고 있다면, 그 위법성이 인지되더라도 그것은 대개 사소한 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중화이론은 순응자 일탈 영역의 인접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중화기술(Cressey, 1953; Geis 1968; Chibnall/Sanders, 1977)이 제안되었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으로 채택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응자 일탈 영역에 대한 다른 일탈 이론들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순응자 일탈에 미치는 중화기술의 영향력을, 개별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 검토를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청소년 일탈의 중화기술과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화기술로 개발된 중화기술들이 순응자 일탈에서도 유효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중화기술이 구체적으로 일탈이나 범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 수행된 경험조사의 결과를 재해석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중화기술의 보다 단순한 측정방법을 고안해내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중화기술의 경험조사를 종합적으로 개괄하는 3장에서는, 2장의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중화이론을 반박하는 몇몇 경험연구의 결과들이 오히려 중화이론의 효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계속해서 중화기술의 효과를 종단자료가 아니라 횡단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화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중화기술이 일탈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할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경험조사

(n=318)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다.

II. 중화기술과 중화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일탈과 범죄 연구에서 중화기술은 행위 이후의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행위 발생 이전에 규범의 억제기능을 무력화하는 논리를 적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중화기술은 사익스와 맛차(Sykes/Matza, 1957)가 청소년 일탈을 설명할 목적으로 구체적 형태를 제시한 외에도, 화이트칼라 범죄와 거대범죄(macro crime, Makrokriminalität)와 같은 다양한 일탈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제안되었다. 세 가지 설명 모두 중화기술이 행위 이전에 발생한다는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거대범죄”란, 주로 정정(政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합적 행위의 형태로 자행되는 범죄적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 개념의 창안자인 예거(Jäger, 1989)는 거대범죄 현상을 설명할 목적으로 열 가지 유형의 중화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³⁾.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동원되는 거대범죄의 중화기술은 제외하고, 청소년 일탈의 중화기술과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화기술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겠다.

1. 여러 일탈유형의 중화기술

가. 청소년 일탈의 중화기술

사익스와 맛차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위계층의 일탈 청소년들이 사전적 규범무력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손상의 부인, 피해자의 부인, 책임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의 다섯 가지 중화기술을 개념화하였다.

3) “거대범죄”의 중화기술은 구체적으로 법률외적 규범과 가치, 집단의 감정적 영향, 피해자의 비인간화, 정치적 신념, 문화인류학적 상수(常數), 둔감화 과정, 책임의 경감, 실질적 탈범죄화, 현실인지의 제한, 사회적 원거리 공간의 아노미 등과 관련하여 작동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거(Jäger, 1989: 191-209)를 참조하라.

손상(의) 부인(denial of injury)은 일탈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절도를 잠시 빌리는 것으로 정의하여 규범의 효력을 중립화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재정의의 결과 행위와 행위결과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그 결과 행위자들은 행위의 범죄적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의) 부인(denial of victim)은 예를 들어 동성애자이거나 창녀들처럼 사회적 멸시를 받는 소수자들에 대한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로 인지하여 이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정당한 복수나 당연한 응보로 간주하는 것이다. 혹은 피해자의 존재가 물리적 부재나 익명성이나 막연한 추상성으로 인해 약화될 수도 있다.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은 일탈자들이 자신이 우연히 나쁜 상황에 내몰렸다고 봄으로써, 자기 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탈자는 이 경우 규범의 요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규범을 침해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일탈청소년이 자신을 비난하는 경찰이나 부모나 기성세대는 나쁜 사람이므로 자기의 잘못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하며 자기의 일탈행위를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보편적 규범의 요구와 경쟁적 규범(예: 우정)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행위자가 후자를 선택하는 대신 전자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중화기술이다.

나.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화기술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채택하는 중화기술은 크레시(Cressey)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크레시는 사익스와 맞차가 중화이론을 발표하기 4년 전에 중화이론의 핵심을 “합리화(rationalization)”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표하였다. 크레시에 따르면, 합리화는 “사후 정당화”(ex post facto justification)가 아니라, 행위 발생 이전에 작용하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동기를 의미한다(Cressey 1973[1953]: 64). 그리고 합리화는 논리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조절도구”로, ‘의무’나 도덕과 같은 관념들이 상충하는 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며, 바로 여기에 “합리화”의 의

미가 있다(Cressey, 1973: 95).

크레시는 자신이 화이트칼라 범죄로 파악한 횡령에 관한 연구에서 사익스와 맞차의 손상 부인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크레시가 면접한 사람들은 횡령을 “빌리는 것”으로 정의하며,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은 후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고 그로 인해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다”(Cressey 1973: 101)거나, “사용된 돈이 내 소유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을 갚을 돈이나 그 금액만큼을 확보할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는 하지만, 범죄적인 일은 아니다”(Cressey 1973: 104)라고 주장하였다. 나중에 가이스(Geis)는 손상부인의 중화기술이 가격담합에서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가격담합에 연루된 어떤 기업임원은 가격담합이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누구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적인 것은 아니”(Geis, 1968: 108)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코울먼(Coleman, 1987: 410-414)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화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불필요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거나, 범죄행위를 특정한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거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견해들을 중화기술의 보기로 제시한다. 법률 무시 태도는 행위의 일탈성이나 범죄성을 부정하는 중화기술이며, 범죄행위 불가피론은 책임 부정 기술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항변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나는 내가 범죄적으로 잘못된 어떤 것을 했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했을 뿐이다. 내가 규칙을 어겼다면, 누가 어기지 않았는가? 나를 처벌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청소해라. 내가 유죄라면 내 입장을 변호해 줄 사람들은 많이 있다”(Chibnall/Sanders, 1977: 142). 이 중화기술은 “편재성(遍在性) 항변(defense of ubiquity)”이라 명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 후 마이너(Minor, 1981)는 “장부책 은유”와 “필연성 항변”이라는 두 가지 중화기술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장부책 은유(metaphor of ledger)는 선한 일을 충분히 한 사람은 상쇄되어도 괜찮을 만큼 미리 ‘벌어’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의 중화기술이다. 필연성 항변(defense of necessity)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탈행위 외의 다른 수단

이 없다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화기술에서 범죄행위를 다른 목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논리와 비슷하다. 또한 이 기술은 일종의 상황책임론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인 책임부인 기술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다. 순응자 일탈의 중화기술

앞 절에서 청소년 일탈의 중화기술과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화기술의 구체적인 보기로, 손상 부인, 피해자 부인, 책임 부인(필연성 항변), 비난자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장부책 은유, 편재성 항변의 일곱 가지가 제안되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 일탈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제안되었던 중화기술들이 순응자 일탈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순응자 일탈은 관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대개 발각될 위험이 작거나 발각되더라도 일탈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관습적 생활의 지속적인 유지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행위유형들이기 때문에, 순응자 일탈에서는 방금 제시된 중화기술이 대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과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주장되었던 중화기술 가운데 어떤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위의 일곱 가지 중화기술 가운데 충성심에의 호소는 순응자 일탈의 중화기술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충성심에의 호소는, 청소년 일탈자들이 또래집단의 하위 문화적 가치를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 일탈의 중화기술로 적절해 보이며, 기업 임원들이 기업범죄, 즉 기업을 위한 범죄⁴⁾(Cressey/Quinney, 1973: 173)에서 보편적 규범과 상반되는 조직의 요구에 직면한다는 점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의 효과적인 중화기술로

4) 서덜랜드의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게 제안되었으며(이태원, 1998), 적어도 크레시와 퀴니(Cressey/Quinney, 1973: 173)가 제안했던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직업 활동의 범위 내에서 자신을 위해 저지르는” 직업범죄(occupational crime)와 “기업의 임원들이 기업을 위해 저지르는 범죄와 기업 자체의 범죄”를 가리키는 기업범죄(corporate crime)로 구별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순응자 일탈은 개인적 수준에서, 즉 타인이나 조직에 구속되지 않은 조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결정의 결과로 진행되는 위반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탈자들은 순응자 일탈에서 경쟁적 규범의 압력에 직면할 개연성이 낮다.

따라서 순응자 일탈의 중화기술의 구체적 형태로 손상 부인, 피해자 부인, 책임 부인(필연성 항변), 비난자 비난, 장부책 은유, 편재성 항변의 여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2. 일탈에 대한 중화기술의 효과

일탈연구자들이 중화기술을 수용하였던 방식과는 달리, 사익스와 맞차는 중화기술을 독립 이론으로 제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의 전제 가운데 하나를 보장하고 명료화하려는 의도(Sykes/Matza, 1957: 664, 667)에서 중화기술을 개념화하였다. 맞차는 사익스와 함께 중화기술 논문을 발표한 7년 후, “Delinquency and Drift”라는 단독 저서에서 중화의 수용이 자동적으로 일탈을 결과하지는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화는 청소년들을 사회통제로부터 “풀어주며” 그들을 “표류(drift)”의 상태에 둘 뿐이다. 표류는 “심층의 영향에 의해 천천히 이끌리는 움직임”(1964: 29)을 의미한다. 즉, 표류는 개인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제재 사이라는 연속선상의 어떤 한 곳에 고정된 채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때로는 완전히 비관습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때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여 연속선상의 양극단 중 어느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옮기는 과정(Matza, 1964: 51, 이윤호, 2007: 309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일탈행위에까지 표류해가는 지는 또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하위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맞차는 중화가 일탈의 가능성을 만들 뿐이라고 말한 후, “하나의 누락 요소, 즉 밀침(thrust)이나 자극(impetus)이 있으며, 이것이 일탈의 가능성을 실현시킨다”(Matza, 1964: 181)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화기술을 사회 유대 이론의 하나의 요소로 보는 마이너(Minor, 1981)의 관점은 사익스와 맞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사회적 유대의 약화나 단절이 일탈이나 범죄의 발생원인이 되는데, 중화는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

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이너는 중화를 통제 이론의 여러 차원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중화가 “범죄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범죄를 만드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Minor, 1980: 300)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 편, 볼(Ball, 1966)과 허쉬(Hirschi, 1969)는 중화를 과정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볼은 렉클리스와 쇼햄(Reckless/Shoham, 1963)의 규범침식 이론과 렉클리스(Reckless, 1962)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의 관점에서 중화를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규범침식 이론은 규범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된다고 주장한다. 중화는 일탈자들이 일탈에 대한 다양한 정당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관습적 규범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규범 침식을 촉진시키는 여러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렉클리스의 봉쇄이론은 인과이론이 아니라 개연성 이론으로, 그 핵심진술은 충분한 내적·외적 봉쇄는 일탈참여를 최소화하며, 빈약한 내적·외적 봉쇄는 일탈 발생의 개연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볼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중화를 규범침식을 촉진하면서 내적 봉쇄를 약화시켜 일탈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내적 요소라고 주장한다(Ball, 1966: 28-29). 볼 이후 허쉬(Hirschi, 1969: 298)는 중화를 경화 과정(Hardening Process)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는데, 이 견해는 마이너(Minor, 1984)의 대학생 패널조사를 통해 경험적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 때, 마이너는 중화를 기본적으로 “비관습적 규범에 말려드는 점진적인 과정의 촉진 요소”라는 견해를 취하였다.

중화연구자들은 - 일탈과 범죄 연구에서 중화기술을 독립적 이론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 중화를 다른 이론의 틀 내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중화가 일탈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화연구자들은 중화에 대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사익스와 맛차는 중화가 표류를 야기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는 한 편, 볼과 허쉬와 마이너(Minor, 1984)는 중화가 점진적인 과정의 촉진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은 각각 하위문화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일탈과 관습적 생활을 유지하는 성인들에 의한 일탈을 설명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사익스와 맛차는 실제로 표류의 관점을 인격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

년들에 의한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반면 순응자들이 관습적 사회에 정착한 상태에서 가끔씩 저지르는 일탈행위를 설명하기에는 행위가 되풀이되면서 규범에 대한 감각이 점진적으로 둔감해지는 과정의 관점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이 때 둔감화 과정이 보편적 규범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일탈행위와 관련한 특수한 규범에 대해서 진행됨은 물론이다.

III. 중화 연구 경험조사와 방법론

1. 중화 연구의 경험조사

중화이론은 일탈사회학자나 범죄학자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이론으로 수용하였던 것에 비하면, 경험조사는 그렇게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경험조사는 대부분 청소년 일탈의 중화기술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로, 중화기술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들(Hindelang, 1970, 1974; Hamlin, 1988)과 중화기술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Austin, 1977; Ball, 1966, 1977; Ball/Lilly, 1971; Egg/Sponsel, 1978; Minor, 1984; Thurman, 1984; Hollinger, 1991)로 나눌 수 있다.

중화기술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은 중화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햄린(Hamlin, 1988)은 중화기술이 사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사후변명에 더 적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론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힌데랑(Hindelang, 1970: 508)은 일탈자들은 “일탈참여를 막는 도덕적 금지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화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옵(Opp, 1974)도 동조규범이 행위기준으로 충분히 수용되었을 때만, 중화가 일탈행위 발생에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힌데랑은 이 견해의 근거를 자신의 다른 조사(1974)의 응답자들이 맛차의 응답자들보다 폭력범죄를 승인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힌데랑 연구의 응답자들은 20%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맛차의 연구에서는 1%만이 승인하였다. 힌데랑의

‘규범 필요론’은 그 후 다른 연구들(Austin, 1977, 1980; Thurman 1984; Regoli/Poole, 1978; Amelang/Schahn et al., 1988)의 지지를 확보했다⁵⁾. 그러나 힌데랑 등의 연구와 열거된 연구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폭력 승인 여부를 설문한 후 여기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폭력승인 정도를 추론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대답은 그들이 알고 있는대로의 폭력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어떤 상황에도 폭력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방법론은 문제가 있다(Agnew, 1994: 558-559).

그러나 햄린의 결론이나 힌데랑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규범 내면화의 문제는 중화기술이 일탈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과 중화를 일회성의 사건으로 파악하기보다 과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화기술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반박으로 볼 수 없다. 햄린(Hamlin, 1988)의 조사에서 일탈과 사후 변명의 관계는 밝혀내었지만 사전 합리화와 추후 일탈의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중화가 예를 들어 통제 이론적 관점에서 반드시 일탈을 결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화이론을 반박하는 자료로 채택되기 힘들다. 힌데랑과 동료들과 일군의 연구자들이 밝혀내었던 내면화된 규범의 조절자 기능도, 중화를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중화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수용할 수 있다. 마이너의 경화과정 연구에서 중화는 점진적 과정을 촉진하는 요소로 초기의 일탈행위에서는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더 이상 요구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편, 중화기술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대학생의 일탈행위를 조사했던 마이너(Minor, 1981, 1984)와 보통 사람들의 작업장 일탈을 조사했던 홀링어(Hollinger, 199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소년 일탈에서 중화기술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두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화의 종합점수와 일탈행위의 종합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설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설계는 개별 중화기술과 일탈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험조사들은 중화를 일반적인 수준

5) 이 연구들 가운데 아멜랑과 동료들의 연구는 의도적 범죄에서 규범내면화가 중화기술 효과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수감된 범죄자들 가운데에서, 중화와 일탈의 상관관계가 규범내면화 정도가 높은 설문자들은 $r=.53$ 이었던 반면 규범내면화 정도가 낮은 설문자들은 $r=.02$ 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에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쉐먼(Thurmann, 1984)은 피해자 부인의 중화기술을 “관련된 피해자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때에는 범을 어겨도 된다”는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일탈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중화기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의미 있는 조사는 홀링어(Hollinger, 1991)의 작업장 일탈에 관한 연구이다. 홀링어의 연구는 개별 중화기술의 효과를 조사하고 있는 외에도,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를 조사하였다. 홀링어는 허위 병가신청이나 작업장의 비품 반출처럼 일반 노동자나 회사원들이 직장에서 저지러 수 있는 규범위반 행위에 대해 중화기술이 효과를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이 조사에서 26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보다 손상 부인과 피해자 부인의 중화기술을 보다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는데, 이것은 중화가 과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하나의 간접적 근거로 볼 수 있다.

2. 중화이론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제한된 중화효과의 함의

중화이론에 대한 경험조사가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론 검증을 위해 합리화와 일탈 발생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종단조사를 통해 접근하여야 하며, 그만큼 연구 착수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연구조건에서 홀링어(Hollinger, 1991)는 횡단자료를 통해서 중화이론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홀링어는 정의와 일탈 가운데 무엇이 최초에 나타나는지를 결코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으며⁶⁾ 중화과정은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행위가 태도를 형성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도 중화 혹은 변명과 일탈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 홀링어는 횡단자료를 가지고 일탈에 대한 태도와 일탈행위의 실제 시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의 원리는 응답자들이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못하

6) 차별교제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최초의 일탈행위를 하기 전에 필수적인 모든 일탈선호 정의를 내면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Sutherland/Cressey, 1970: 77-79).

도록 통제하면서, 태도를 먼저 측정하고 일탈행위 여부를 나중에 측정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홀링어는 응답자들이 자기 신념과 행위 사이의 모순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설문을 피할 목적으로 중화기술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홀링어는 이 조치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합리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단, 이 방법은 사후 변명이나 합리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절하다⁷⁾(Hollinger, 1991: 199).

홀링어의 제안은 방법론적 오류는 없지만 조사의 규모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홀링어는 미국의 산업분야 세 곳의 대표성 있는 경험조사를 위해 일만 개에 가까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중화이론을 앞 절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과정의 한 순간으로 보는 관점과 중화가 반드시 일탈을 결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홀링어의 방법보다 경제성이 높은 조사방법도 고안할 수 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홀링어의 아이디어 가운데 일탈에 대한 태도를 먼저 측정한 후 과거의 일탈 경험을 나중에 측정하는 방법을 수용하며, 과거의 일탈 경험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탈 가능성도 측정하는 데에 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자료, 즉 과거의 일탈경험과 중화 혹은 사후변명의 관계에 대한 자료와 행위에 대한 현재의 태도와 장래의 일탈 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생산할 것이다. 이 때 일탈에 대한 태도와 과거의 일탈경험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알려지지 않으므로, 이 관계에서 사후변명을 측정하였는지 사전중화를 측정하였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두 번째 관계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태도와 장래의 일탈 가능성의 관계는 중화기술이 작용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장래의 일탈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중화는 일탈의 필요조건으로 일탈촉진 태도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또한 첫 번째 관계와 두 번째 관계를 비교하여 중화과정의 한 단면을 분석단위로 포착할 수 있다.

7) 홀링어는 예를 들어, 경력 일탈자나 처벌받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범죄 행위 후 발생하는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사후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반면 보통 시민들은 스스로 일탈자라 보지 않기 때문에, 사후변명이나 합리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밖에 중화기술에 대한 경험조사는 초기연구들이 중화를 일반적이며 종합적으로 다루었던 경향을 벗어나 개별 중화기술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화기술은 공통적인 논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것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상정하며 다양한 형태의 논리적용 기술들을 모아둔 것이다. 따라서 중화기술의 합산된 효과가 전체적인 일탈경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개별 중화기술들이 특정한 부류의 일탈행위에 대해 차별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IV. 연구질문과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순응자 일탈에 대한 개별적 중화기술의 효과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의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기여하느냐? 둘째, 중화는 과정의 관점에서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느냐? 셋째, 여섯 가지 중화기술 가운데 어떤 중화기술이 특정한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중화기술은 앞서 검토하였듯이, 손상 부인, 피해자 부인, 책임 부인(필연성 항변), 비난자 비난, 장부책 은유, 편재성 항변의 여섯 가지이다.

순응자 일탈의 보기는 행위의 공적 성격과 행위가 발생할 영역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는 위에서 순응자 일탈의 실제적인 보기로, 과속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위반 사범이나 교통범죄, 가정폭력범죄, 상점절도, 보험범죄, 직원의 회사비품 반출과公款 유용, 조세범죄, 관세범죄, 부정수표 범죄 등을 포함하는 경제범죄 등을 열거하였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범죄는 발생 가능성이 가정생활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세범죄, 관세범죄, 부정수표 범죄 등의 경제범죄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인구집단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이 보기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와 노동계약 관계에 있는 피고용인들만을 설문하여 조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취할 수 있다. 순응자 일탈의 보기로 선정된 일탈행위는 최종적으로, 자동차 주행속도 위반(속도위반), 자

동차 음주운전(음주운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취하는 행위(상점절도), 보험금을 실제 피해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행위(보험금 과다청구), 직장의 비품을 허가 없이 취하는 행위(회사비품반출), 회사공금을 사적 용도로 집행하거나 착복하는 행위(회사공금사용(私用))의 여섯 가지이다.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서울시와 경북의 구미시와 영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인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첫째주부터 셋째주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두 405장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5장(16%)의 미회수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지 22장(5.4%)을 제외한 318명(78.5%)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12.0.1 버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각각의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탈행위별로 - 나이와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종속변수인 일탈빈도와 예상일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10% 내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모두 열 두 개의 로짓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는데, 이것은 순응자 일탈의 여섯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각각 실제 일탈과 예상 일탈 가능성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예상 일탈을 종속변수로 삼은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개별 순응자 일탈에 대한 중화기술의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전제된다. 실제 일탈을 종속변수로 실행한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과거의 실제 일탈에 대해 사후변명 혹은 사전중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중화기술이 예상 일탈에 대한 태세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동일한 일탈에 대한 합리화가 선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일탈의 회귀분석과 예상 일탈의 회귀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중화기술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진

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정도, 소득수준의 네 차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나이는 응답자가 만 나이를 직접 기입토록 하였고,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의 여섯 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을 최저 1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단위로 단계를 정하여 최고 600만원 이상까지 모두 일곱 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중화기술은 여섯 가지 형태(손상부인, 피해자부인, 책임부인, 비난자비난, 장부책은유, 편재성향변)가 여섯 가지의 일탈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36개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해당 일탈행위에 있어서 해당 중화기술을 응답자가 수용 혹은 거부하는지를 제시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일반시민들이 주로 부정적인 응답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하여, 보다 세밀한 7점 등간척도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음주운전의 중화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만을 보기로 제시하겠다.

손상부인은 “음주운전은 약간 위험할 뿐,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므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설문으로, 피해자부인은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므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피해자부인의 중화기술은 피해자의 존재가치를 폄하하는 논리적용 기술과 피해자의 물리적 부재나 익명성이나 막연한 추상성으로 피해자를 인지하지 않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서는 후자의 논리가 적용될 개연성이 더 높다. 계속해서 책임부인은 “음주운전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음주운전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비난자비난은 “음주단속을 하는 국가나 경찰은 더 큰 잘못이 있으므로, 사소한 음주운전은 괜찮은 일이다”로, 장부책은유는 “다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음주운전만 한다면, 괜찮은 일이다”로, 편재성향변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다”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실제 일탈과 예상 일탈 모두 응답자가 ‘없다’와 ‘있다’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V. 분석결과

1. 기초 통계 분석

가. 응답인구의 일반적 특징과 변인의 분석

조사대상자는 남성 60.3%(191명)와 여성 39.7%(126명)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32.1%(102명)의 20대와 45.2%(144명)의 30대를 주축으로 비교적 비율이 낮은 40대(17.0%)와 50대 이상(5.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가구총소득은 200만 원대가 31.6%(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00만 원대가 19.9%(63명), 100만원 대가 17.1%(54명), 400만 원대가 11.4%(3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3.3%(169명)로 절반을 넘겼으며, 다음이 전문대졸로 23.0%(73명)이었으며 대학원 이상이 12.3%(39명), 고졸이 11.4%(36명)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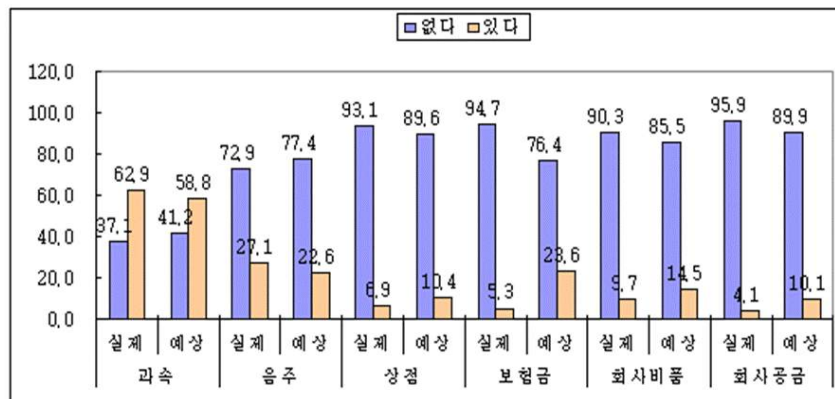
여섯 가지 종류의 일탈행위의 실제 경험과 장래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아래의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지난 1년간 62.9%(200명)가 과속운전 경험이 있었던 반면, 58.8%(287명)가 앞으로 과속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1%(86명)였으며, 음주운전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보다 적은 22.6%(72명)이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반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9%(22명)이었으며,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4%(33명)이었다. 보험금 과다청구 경험이 지난 1년간 있었던 사람은 5.3%(17명)이었으나, 향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3.6%(75명)이었다. 회사비품 무단반출 경험을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9.7%(31명)이었으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14.5(46명)이었다. 회사공금을 사용(私用)한 경

험이 있는 사람은 4.1%(13명)이었으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10.1%(32명)였다.

<표 1> 응답인구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	191(60.3%)	연 령	20-29	102(32.1%)
	여	126(39.7%)		30-39	144(45.2%)
	합계(결측)	318(1)		40-49	54(17.0%)
소 득	100만원 이하	6(1.9%)		50 이상	18(5.7%)
	100-199만원	54(17.1%)		합계(결측)	318(0)
	200-299만원	100(31.6%)	학 령	고 졸	36(11.4%)
	300-399만원	63(19.9%)		전문대졸	73(23.0%)
	400-499만원	36(11.4%)		대 졸	169(53.3%)
	500-599만원	25(7.9%)		대학원 이상	39(12.3%)
	600만원 이상	32(10.1%)		합계(결측)	317(1)
	합계(결측)	316(2)			



<그림 1> 응답자의 일탈경험과 예상일탈 가능성(%)

이상의 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순응자 일탈 참여경험과 참여가능성에 관해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은 다른 일탈행위보다 참여빈도가 뚜렷하게 높다. 둘째,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은 실

제 일탈에 참여한 인구보다 장래에 일탈에 참여하겠다는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역시 다른 일탈행위에서 예상일탈 인구가 늘어난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이것은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보다 국가의 통제관심과 제재활동이 더 크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일탈의 증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보험금 과다청구와 회사공급 사용(私用)에서 실제일탈 참여인구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예상일탈을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선 이 두 행위가 사람들이 저지를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예상일탈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은 기회가 있으면 이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가지 일탈행위에 대한 여섯 가지 중화기술은 크론바흐 알파의 계수가 일탈행위의 순서대로 0.914, 0.918, 0.958, 0.902, 0.916, 0.922로 신뢰도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중화기술을 측정하는 설문들을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한 결과, 과속운전의 중화기술은 최저 0.771에서 최고 0.838로, 음주운전의 중화기술은 최저 0.709에서 0.848로, 상점절도의 중화기술은 최저 0.623에서 최고 0.800으로, 보험금 과다청구의 중화기술은 0.852에서 0.906으로, 회사비품무단반출의 중화기술은 최저 0.633에서 최고 0.781로, 회사공급 사용의 중화기술은 최저 0.619에서 0.855로 모두 여섯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여섯 가지 일탈유형에서 여덟 개의 변인들 간에 계산되었으며 모두 168개(6*28개)를 얻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여섯 개의 상관관계 분석표를 제시하는 대신 상관관계 계수들의 경향을 요약하여 보고하겠다. 상관관계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네 개의 상관관계 계수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나머지 164개의 상관관계의 계수는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계수는 보험금 과다청구에서 실제일탈과 손상부인, 실제일탈과 피해자부인, 실제일탈과 비난자비난, 실제일탈과 편재성향변 간의 상관관계이다. 여섯 가지 일탈유형에서 상관계수들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중화기술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0.5 대에서 0.7대에 걸쳐있으며, 실제일탈과 예상일탈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0.4 대에 걸쳐 있었다. 중화기술과 일탈행위와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0.2 대에 분포하여 있었다.

2. 중화기술의 로짓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두 12개의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화기술이 특정한 일탈행위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 따라, 여섯 개의 일탈행위에 대해 별도의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중화기술의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구 분	과속운전/추정계수		음주운전/추정계수		상점절도/추정계수	
	실제 일탈	예상 일탈	실제 일탈	예상 일탈	실제 일탈	예상 일탈
나 이	0.044***	0.001	0.007	-0.003	0.001	0.032
학 력	0.244	0.232	0.504***	0.304*	0.533	0.365
1. 손상부인	0.212*	-0.016	0.295	0.231	-0.093	0.744
2. 피해자부인	-0.013	0.215*	-0.143	-0.032	-0.028	0.646
3. 책임부인	0.081	-0.004	0.106	0.032	-0.407	-0.030
4. 비난자비난	0.341**	0.371**	-0.162	0.071	1.032**	0.671*
5. 장부책은유	0.271	0.335*	0.253	0.210	0.417	0.123
6. 편재성향변	-0.369	-0.249	0.638**	0.820***	0.219	-0.810
구 분	보험금 과다청구/추정계수		회사비품 반출/추정계수		회사공금 사용/추정계수	
	실제 일탈	예상 일탈	실제 일탈	예상 일탈	실제 일탈	예상 일탈
나 이	-0.032	-0.012	0.063**	0.010	0.063*	0.017
학 력	0.708*	0.244	0.502*	0.246	0.442	0.123
1. 손상부인	0.016	-0.168	0.614	0.511	0.289	0.447
2. 피해자부인	-0.987	0.383	0.260	0.078	1.340***	0.492
3. 책임부인	1.330***	0.163	0.641**	0.206	-0.183	-0.400
4. 비난자비난	-0.342	0.186	-0.218	0.101	-0.027	0.041
5. 장부책은유	0.933*	-0.125	-0.092	0.915**	1.381*	0.928*
6. 편재성향변	-0.487	0.342	0.551	-0.197	-0.810	-0.352

***=p<0.01, **=p<0.05, *=p<0.1.

그리고 중화기술과 실제일탈의 인과관계와 중화기술과 일탈가능성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조사하기 위해, 개별 일탈행위에 대해서 두 개의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부표에 수록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아래 <표 2>에서 추정계수들만을

제시하였다.

먼저 나이와 학력이 순응자 일탈의 실제 경험과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나이는 과속운전과 회사비품 반출과 회사공금 사용의 세 가지 일탈에서 실제 일탈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추정계수들이 각각 0.044, 0.063, 0.063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⁸⁾. 나이는 어떤 일탈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음주운전과 보험금 과다청구와 회사비품 반출의 실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들도 최소한 0.5 이상으로, 영향력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은 또한 음주운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0.3 정도의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이나 보험금 과다청구나 회사비품 반출을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일탈 가능성(예상 일탈)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중화기술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일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조사 이전 시점의 사전 중화 혹은 사후변명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탈 가능성(일탈예상)의 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중화기술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변인들 간의 관계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p < 0.01$ 과 $p < 0.05$ 외에도 $p < 0.1$ 도 채택하였다.

먼저, 예상 일탈의 회귀분석 결과를 가지고, 개별 일탈행위에 대해 어떤 중화기술이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과속운전에서는 예상일탈에 대해서 피해자부인(추정계수: 0.215)과 비난자비난(추정계수: 0.371)과 장부책은유(추정계수: 0.335)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운전은 가장 많은 중화기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일탈이다. 음주운전에서는 편재성 항변의 중화기술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추정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820이었다. 상점절도에서는

8) 제시된 추정계수들에 상응하는 승산비(odds ratio)는 각각 1.045, 1.065, 1.065이다(부표 참조). 승산비는 설명변수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변하는 정도를 뜻하며, 예를 들어, 승산비 1.045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만큼 증가할 경우,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0.045%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자 비난의 중화기술이 $p<0.1$ 수준에서 0.671의 추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과다청구에서는 어떤 중화기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비품 반출에서는 장부책 은유의 중화기술이 $p<0.05$ 수준에서 0.915의 추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공금 사용(私用)에서도 회사비품 반출과 마찬가지로, 장부책 은유의 중화기술이 $p<0.1$ 수준에서 0.928의 추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과정의 관점에서 중화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합리화와 실제일탈의 관계와 중화와 예상일탈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을 넘은 결과들을 추려보겠다. 이 결과는 위 표2에서 이탤릭체로 처리되어 있다. 해당되는 결과는 모두 네 가지로, 과속운전에서 비난자비난의 중화기술과, 음주운전에서 편재성향변의 중화기술과, 상점절도에서 비난자비난의 중화기술과, 회사공금 사용에서 장부책은유의 중화기술이다.

이상의 결과를 개별 중화기술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만을 일탈행위 별로 정리하여 아래의 표 3에 요약하였다.

<표 3> 일탈행위 별 분석결과 요약

구 분	손상부인	피해자부인	책임부인	비난자비난	장부책은유	편재성향변
과속운전		중화		중화/과정	중화	
음주운전						중화/과정
상점절도				중화/과정		
보험금과다청구						
회사비품반출					중화	
회사공금사용					중화/과정	

중화=예상일탈, 과정=실제일탈+예상일탈

손상부인의 중화기술과 책임부인의 중화기술은 어떤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중화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부인은 과속운전에 대해서 중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비난자비난은 과속운전과 상점절도에 대해서 중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책은유는 가장 많은 일탈행위에 대해서 중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속운전과 회사비품반출과 회사공금 사용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었다. 편재성향변은 음

주운전에 대해서 중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일탈과 예상일탈 모두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한 중화기술은 모두 세 개다. 비난자비난이 과속운전과 상점절도에서, 편재성향변이 음주운전에서, 장부책은유가 회사공금 유용에서 과거의 실제 일탈과 장래의 일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다음의 대답을 가능하게 한다. 즉, 첫째 중화기술은 일탈에 대한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기여한다. 둘째, 중화는 과정의 관점에서, 과거의 일탈경험과 관련한 사후합리화 혹은 중화의 경험이 장래의 일탈에 대한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중화기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부인의 중화기술은 과속운전에, 비난자비난의 중화기술은 과속운전과 상점절도에, 장부책은유의 기술은 과속운전, 회사비품 반출, 회사공금 사용에, 편재성향변의 중화기술은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난자비난의 중화기술과 장부책은유의 중화기술은 두 가지 이상의 순응자 일탈에 영향을 미쳤다.

VI. 맺는 말: 연구결과와 탈중화 전략

본 논문은 “순응자 일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리고 자신의 사회생활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정도로 저지르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순응자 일탈에 속하는 행위는 모든 활동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와 가정폭력, 상점절도나 회사비품 반출이나 회사 공금 사용과 허위세금자료 제출, 보험금 과다청구 등이 있다.

순응자 일탈 현상에서는 순응과 일탈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일시적인 규범억제가 일탈을 가능하게 한다는 중화이론의 영향력을 경험조사를 통해 검증해보았다. 이미 다른 일탈 유형에 대해 개발된 중화기술 가운데, 손상 부인, 피해자 부인, 책임 부인(필연성 항변), 비난자 비난, 장부책

은유, 편재성 항변의 여섯 가지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중화이론가들의 기존의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화기술이 일탈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점과, 성인인 순응자의 일탈에서는 중화가 규범침식 과정의 촉진요소라는 점을 전제하였다.

그동안 중화기술의 경험조사 연구들은 ‘사전’ 합리화와 ‘사후’ 일탈 발생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화기술이 일탈행위가 아니라 일탈에 대한 태세만을 자극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응답자의 중화기술 수용정도와 장래의 일탈가능성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중화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동시에 첫째 중화기술 수용정도와 과거의 실제일탈의 상관관계와 둘째 중화기술 (혹은 사후 합리화) 수용정도와 장래 일탈가능성의 상관관계가 모두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화가 규범침식 과정의 한 순간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섯 가지 중화기술들이 과속운전과 음주운전과 상점절도와 보험금 과다청구와 회사비품 반출과 회사공금 사용(私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선택된 일탈행위 유형별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험금 과다청구를 제외한 다섯 가지의 일탈에 대해, 상이한 중화기술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였다. 규범침식 과정으로서 중화기술에 대해서도 과속운전과 음주운전과 회사공금 사용에서 경험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별히 비난자 비난의 기술과 장부책 은유의 기술이 둘 이상의 일탈행위 유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험조사는 조사된 행위유형의 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샘플의 수와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의 문제 등으로 경험적 토대가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순응자 일탈의 현상을 근접하게 반영한다고 전제한다면, 즉 중화가 순응자 일탈의 다양한 행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전제할 수 있다면, 중화를 감소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일탈행위의 감소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화가 행위 시점의 억제와 의심 등을 약화시켜서 일탈행위를 촉진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억제나 의심의 약화를 다시 강화시키는 탈중화 전

략이 일탈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중화전략의 핵심은 특정한 일탈 행위가 결코 개인과 사회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무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다. 실제로 구미 선진국에서 지난 수 십년 간 경제범죄나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학문적 연구와 정책수립이 이루어진 결과 문제규모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탈중화 전략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순응자 일탈의 탈중화 전략의 구체적인 형태를 고민함에 있어서, 본 조사에서 비난자비난과 장부책은유가 효과적인 중화기술이라는 점이 도출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두 중화기술 모두 일탈자가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을 빌미로 다른 영역에서 일탈을 허용하는 기술이다. 비난자비난은 기업이나 국가기관과 같은 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들이 비난받을 만하며 자신은 다른 곳에서 ‘작은’ 일탈을 저지를 뿐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장부책은유는 자신은 사회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많이 ‘베풀기만’ 했기 때문에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며, 일탈행위는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중화기술을 경감시키려면, 개인이 비난자비난이나 장부책은유의 중화기술을 채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비난자비난의 중화기술을 탈중화하려면, 개인이 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나 주위의 ‘보통’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며 친사회적으로 행동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거나 적어도 개인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부책은유의 중화기술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납득할 만큼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으로써 채택될 여지가 좁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1999,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1995,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II).” 200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성진,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1999,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희, “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방안.” 200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 “범죄학.” 2007, 서울: 박영사.
- 장영민, 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1993,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한 연구.” 2004,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최영신,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1994,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2000,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만성, “공보험 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내 논문>

- 이태원,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에 관한 최초 쟁점들.” 1998, 형사정책연구 9(1): 103-135.

<구미 단행본>

- Clinard, Marshall B. and R. Quinney,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1967, New York and Chicago: Holt, Rinehart & Winston.
- Clinard, Marshall B. and R. Quinney,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1973, New York and Chicago: Holt, Rinehart &

Winston.

Cressey, Donald R., *Other People's Money: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Embezzlement*, 1953, Glencoe, IL: Free Press.

Ermann M. David and R. J. Lundman(Eds.), *Corporate Crime and Governmental Deviance: Problems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 Contemporary Society*. 197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een, Gary S., *Occupational Crime*. 1990, Chicago: Nelson-Hall.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196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ohnson, J. M. and J. D. Douglas(Eds.), *Crime at the Top: Deviance in Business and the Professions*. 1978, Philadelphia: Lippincott.

Simon, D. R. and D. S. Eitzen, *Elite Deviance*. 1982, Boston: Allyn and Bacon.

Sutherland, E. and D. Cressy, *Criminology*, 8th Ed. 1970, Philadelphia: Lippincott.

Wilson, P. R. and J. Braithwaite, *Two Faces of Deviance: Crimes of the Powerless and the Powerful*. 1978, St. Lucia, Queensland.

<구미 논문>

Agnew, R.,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nd Violence." 1994, *Criminology* 32(4): 555-580.

Ameland, M., J. Schahn and D. Kohlmann, "Techniken der Neutralisation: Eine modelltestende Untersuchungen und der Basis offizieller und selbstberichteter Delinquenz." 1988, *Monatsschrift für Kriminologie und Strafrechtsreform* 71: 178-190.

Amelang, M., C. Zahn and J. Schahn, "Empirische Prüfung einiger Elemente der Neutralisations-Theorie." 1988, pp.: 727-756. K. Günter, K. Helmut, H.-J. Albrecht(Eds.), *Kriminologische Forschung in den 80er Jahren: Projektberichte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reiburg.

- Austin, R. L., "Commitment, Neutralization, and Delinquency." pp.: 121-137 T. N. Ferdinand(ed.), *Juvenile Delinquency: Little Brother Grows Up*. 1977, Beverly Hills: Sage.
- Ball, R. A., "An Empirical Exploration of Neutralization Theory." 1966, *Excerpta Criminologica* 4: 22-32.
- Ball, R. A., "Emergent Delinquency in an Urban Area." 1977, pp.: 102-120. T. N. Ferdinand(ed.), *Juvenile Delinquency Little Brother Grows Up*. Beverly Hills: Sage.
- Ball, Richard A. and J. Robert Lilly, "Juvenile Delinquency in a rural county." 1971, *Criminology* 9: 69-85.
- Chibnall, S. and P. Saunders, "World Apart: Notes on the Social Relativity of Corruption." 1977,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8: 138-153.
- Coleman, James W.,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White-Collar Crime." 198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406-439.
- Egg, R. and R. Sponsel, "'Bagartell-Delinquenz' und Techniken der Neutralisierung. Eine empirische Prüfung der Theorie von Szkes und Matza." 1978, *Monatsschrift für Kriminologie und Strafrechtsreform* 61: 38-50.
- Frehsee, D., "Zur Abweichung der Angepaßten." 1991, *Kriminologisches Journal* 23(1): 25-45.
- Geis, G., "The heavy Electrical Equipment Antitrust Cases of 1961." 1968, pp.103-118 in G. Geis(ed.), *White Collar Criminal*. New York: Antherton.
- Hamlin, J.E., "The Misplaced Role of Rational Choice in Neutralization Theory." 1988, *Criminology* 26: 425-438.
- Hindelang, M. J., "The Commitment of Delinquents to Their Misdeeds: Do Delinquents Drift?" 1970, *Social Problems* 17: 502-509.
- Hindelang, M. J., "Moral Evaluations of illegal Behaviors." 1974, *Social Problems* 21: 370-385.

- Hollinger, R. C., "Neutralization in the Workplace: An Empirical Analysis of Property Theft and Production Deviance." 1991, *Deviant Behavior* 12: 169-202.
- Minor, William W.,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Re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Verification." 1981,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8: 295-318.
- Minor, William W. "Neutralization as a hardening Process: Considerations in the Modelling of Change." 1984, *Social Forces* 62: 995-1019.
- Newman, Donald J., "White Collar Crime." 1958, *Law and Contemporary Problem* 23: 735-753.
- Reckless, W., "A Non-Causal Explanation: Containment Theory." 1962, *Excerpta Criminologica* 2(2): 131-134.
- Reckless, W. and S. Shoham, "Norm Containment Theory as Applied to Delinquency and Crime." 1963, *Excerpta Criminologica* 3(6): 1-9.
- Regoli, Robert M. and Eric D. Poole, "The Commitment of Delinquents to their Misdeeds: A Re-examination." 1978,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 261-268.
- Sykes, Gresham M. and D. Matza,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1957,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664-670.
- Thurman, O. C., "Deviance and the Neutralization of Commitment: An empirical analysis." 1984, *Deviant Behavior* 5: 291-304.
- Wallerstein, J.S. and G.J. Wyle, "Our Law-abiding Law Breakers." 1947, *Probation*: 107-112.

<부 표>

과속운전	실 제					예 상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나 이	0.044	0.016	7.390	0.007	1.045	0.001	0.015	0.004	0.952	1.001
학 력	0.244	0.153	2.541	0.111	1.276	0.232	0.148	2.449	0.118	1.261
손상부인	0.212	0.122	3.018	0.082	1.236	-0.016	0.118	0.017	0.896	0.985
피해자부인	-0.013	0.129	0.010	0.919	0.987	0.215	0.128	2.850	0.091	1.240
책임부인	0.081	0.181	0.201	0.654	1.085	-0.004	0.173	0.001	0.981	0.996
비난자비난	0.341	0.172	3.926	0.048	1.407	0.371	0.168	4.843	0.028	1.449
장부책은유	0.271	0.203	1.778	0.182	1.311	0.335	0.199	2.832	0.092	1.397
편재성주장	-0.369	0.201	3.357	0.067	0.692	-0.249	0.195	1.627	0.202	0.780
상 수	-3.347	0.947	12.484	0.000	0.035	-2.302	0.901	6.521	0.011	0.100
모델카이자승	39.297					40.063				
-2 Log 우도	373.411					385.500				
Nagelkerke R2	0.161					0.162				
sig	0.000					0.000				

음주운전	실 제					예 상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나 이	0.007	0.017	0.192	0.661	1.007	-0.003	0.018	0.021	0.885	0.997
학 력	0.504	0.177	8.087	0.004	1.656	0.304	0.185	2.720	0.099	1.356
손상부인	0.295	0.286	1.061	0.303	1.343	0.231	0.289	0.634	0.426	1.259
피해자부인	-0.143	0.279	0.263	0.608	0.867	-0.032	0.267	0.015	0.904	0.968
책임부인	0.106	0.290	0.134	0.714	1.112	0.032	0.299	0.011	0.916	1.032
비난자비난	-0.162	0.320	0.258	0.612	0.850	0.071	0.334	0.046	0.830	1.074
장부책은유	0.253	0.321	0.625	0.429	1.288	0.210	0.332	0.402	0.526	1.234
편재성주장	0.638	0.285	5.022	0.025	1.892	0.820	0.290	7.987	0.005	2.270
상 수	-5.124	1.113	21.191	0.000	0.006	-4.600	1.171	15.443	0.000	0.010
모델카이자승	33.885					42.528				
-2 Log 우도	330.216					295.605				
Nagelkerke R2	0.149					0.192				
sig	0.000					0.000				

상점절도	실 제					예 상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나 이	0.001	0.031	0.001	0.982	1.001	0.032	0.025	1.704	0.192	1.033
학 력	0.533	0.328	2.647	0.104	1.704	0.365	0.262	1.939	0.164	1.441
손상부인	-0.093	0.713	0.017	0.896	0.911	0.744	0.572	1.695	0.193	2.105
피해자부인	-0.028	0.705	0.002	0.968	0.972	0.646	0.620	1.086	0.297	1.908
책임부인	-0.407	0.305	1.785	0.182	0.665	-0.030	0.246	0.015	0.902	0.970
비난자비난	1.032	0.451	5.230	0.022	2.806	0.671	0.394	2.891	0.089	1.956
장부책은유	0.417	0.538	0.601	0.438	1.517	0.123	0.479	0.066	0.797	1.131
편재성주장	0.219	0.392	0.313	0.576	1.245	-0.810	0.449	3.259	0.071	0.445
상 수	-7.128	1.977	12.999	0.000	0.001	-7.383	1.680	19.318	0.000	0.001
모델카이자승	22.073					40.671				
-2 Log 우도	132.233					170.645				
Nagelkerke R2	0.175					0.248				
sig	0.005					0.000				

보험금과다청구	실 제					예 상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나 이	-0.032	0.040	0.642	0.423	0.968	-0.012	0.019	0.403	0.526	0.988
학 력	0.708	0.388	3.336	0.068	2.030	0.244	0.188	1.697	0.193	1.277
손상부인	0.016	0.363	0.002	0.964	1.017	-0.168	0.222	0.572	0.449	0.845
피해자부인	-0.987	0.588	2.818	0.093	0.373	0.383	0.259	2.193	0.139	1.467
책임부인	1.330	0.457	8.481	0.004	3.782	0.163	0.251	0.421	0.516	1.177
비난자비난	-0.342	0.450	0.578	0.447	0.710	0.186	0.222	0.703	0.402	1.204
장부책은유	0.933	0.524	3.172	0.075	2.542	-0.125	0.258	0.233	0.629	0.883
편재성주장	-0.487	0.409	1.419	0.234	0.614	0.342	0.225	2.308	0.129	1.408
상 수	-6.582	2.148	9.386	0.002	0.001	-3.847	1.125	11.702	0.001	0.021
모델카이자승	20.148					47.652				
-2 Log 우도	106.176					292.357				
Nagelkerke R2	0.188					0.213				
sig	0.010					0.000				

회사비품 반출	실 제					예 상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나 이	0.063	0.026	5.885	0.015	1.065	0.010	0.022	0.207	0.649	1.010
학 력	0.502	0.289	3.009	0.083	1.652	0.246	0.227	1.169	0.280	1.279
손상부인	0.614	0.409	2.256	0.133	1.848	0.511	0.337	2.291	0.130	1.666
피해자부인	0.260	0.365	0.509	0.475	1.297	0.078	0.315	0.062	0.804	1.081
책임부인	0.641	0.285	5.073	0.024	1.899	0.206	0.229	0.807	0.369	1.228
비난자비난	-0.218	0.366	0.354	0.552	0.804	0.101	0.291	0.120	0.729	1.106
장부책은유	-0.092	0.470	0.039	0.844	0.912	0.915	0.374	5.971	0.015	2.497
편재성주장	0.551	0.440	1.567	0.211	1.735	-0.197	0.374	0.278	0.598	0.821
상 수	-10.317	1.999	26.646	0.000	0.000	-6.218	1.495	17.304	0.000	0.002
모델카이자승	53.162					50.152				
-2 Log 우도	144.365					210.827				
Nagelkerke R2	0.334					0.262				
sig	0.000					0.000				

회사공금 사용	실 제					예 상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나 이	0.063	0.036	3.076	0.079	1.065	0.017	0.022	0.591	0.442	1.017
학 력	0.442	0.382	1.341	0.247	1.556	0.123	0.231	0.285	0.594	1.131
손상부인	0.289	0.643	0.203	0.653	1.336	0.447	0.468	0.913	0.339	1.564
피해자부인	1.340	0.515	6.767	0.009	3.820	0.492	0.410	1.443	0.230	1.636
책임부인	-0.183	0.489	0.141	0.708	0.832	-0.400	0.356	1.262	0.261	0.670
비난자비난	-0.027	0.573	0.002	0.963	0.974	0.041	0.454	0.008	0.928	1.042
장부책은유	1.381	0.764	3.272	0.070	3.981	0.928	0.545	2.894	0.089	2.529
편재성주장	-0.810	0.596	1.850	0.174	0.445	-0.352	0.457	0.591	0.442	0.704
상 수	-11.391	2.900	15.427	0.000	0.000	-5.083	1.497	11.536	0.001	0.006
모델카이자승	40.92					25.825				
-2 Log 우도	67.414					181.166				
Nagelkerke R2	0.419					0.163				
sig	0.000					0.001				

276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73호, 2008 · 봄호)

A Study on Effects of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on Deviance by Conformists

Lee, Chul*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neutralization techniques on the phenomenon of “deviance by conformists”, i.e. deviant behaviors occasionally committed by people who are fully adapted to the conventional society. As the object of this study, we have selected six among neutralization techniques developed for other patterns of deviant behavior from which effects on deviance by conformists are expected. They are denial of injury, denial of victim, denial of responsibility, condemnation of condemners, metaphor of ledger, and defense to ubiquity. Through a theoretical examination, we will lay stress on two points: Neutralization techniques are a variable which causes the readiness to deviance, not a variable which directly produces deviant behaviors; especially in context of deviance by conformists, neutraliz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norm erosion process.

As a proper inquiry metho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with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This method enables us to seize the moment of neutralization producing the readiness to deviance as well as the neutralization as a part of a norm erosion process. We have conducted a survey of 318 law-abiding citizens in which we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neutralization techniques on the deviance by conformists. Twelv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techniques of condemnation of condemners and metaphor of ledger play an important role in causing deviance by conformis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kind of de-neutralization

* Dong 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Guest Researcher,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trategies coul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deviance by conformists through lowering the neutralization degree. More concretely,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should be ameliorated in order to de-neutralize the technique of condemnation of condemners and that of metaphor of ledge.

주제어 : 순응자 일탈, 중화기술, 중화측정 방법, 비난자 비난,
장부책은유

Keywords : deviance by the conformists, neutralization techniques,
method for measuring neutralization, condemnation of
condemners, metaphor of ledge